

2024-11-11 (2024-44호)

11월 11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강한 트럼프 트레이드 랠리와 중국 부양책 실망..입지 좁아진 원화

서울, 11월1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대통령선거를 소화하며 높은 변동성 장세를 겪은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트럼프 트레이드 양상을 쫓으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80-1410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당선에 따른 시장 반응은 어김없이 과격했지만, 지난 2016년때와는 달리 시장의 선반영도 어느정도 있었던 터라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흐름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듯했다.

미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에 관한 전망의 수정 작업이 뒤따르겠지만, 당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을 기다리는 시간 또한 필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 관련 헤드라인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이 수시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여전하다.

지난주 달러/원은 2년 만의 최고치인 1404원선까지 고점을 높였다.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 결정 이후 원화의 약세 변동성이 대거 확대된 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달러/원 1400원대 시대가 열렸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원화가 나홀로 약세를 극대화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상대적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더욱 적다.

원화는 당분간 글로벌 위험선호 정도와 달러와 위안 등 대외 여건 따라 등락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에 대한 저점 매수 인식은 두텁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재정부양책이 시장을 실망시킨 터라 위안 약세가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을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금주는 미국 10월 물가지표가 나온다.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만큼 물가지표에 관한 시장 관심은 이전보다 줄어야되지만,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다면 예상을 넘어서는 물가지표 결과에 시장이 또 한번 위축될 수는 있겠다.

로이터통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월 CPI는 전년비 2.6% 상승률로 예상돼 9월의 2.4%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공화당이 차지하는 '레드스윙'이 확정될 경우 시장의 반응도 변수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10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등 핵심 경제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당장은 이러한 지표 결과보다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변동성 몸살을 겪은 시장이 이 같은 트레이드를 더 심화시킬지가 더 큰 관심사다. 그 과정에서 달러/원 환율이 재차 1400원대로 레벨을 높일지 그 과정에서 당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 ▶ 주간 세계 이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달러, 암호화폐, 미국 증시가 모두 급등하는 등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촉발됐고,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집권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 ⊙ 미국을 지켜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경제정책을 추진할지 시장은 대기하는 가운데 오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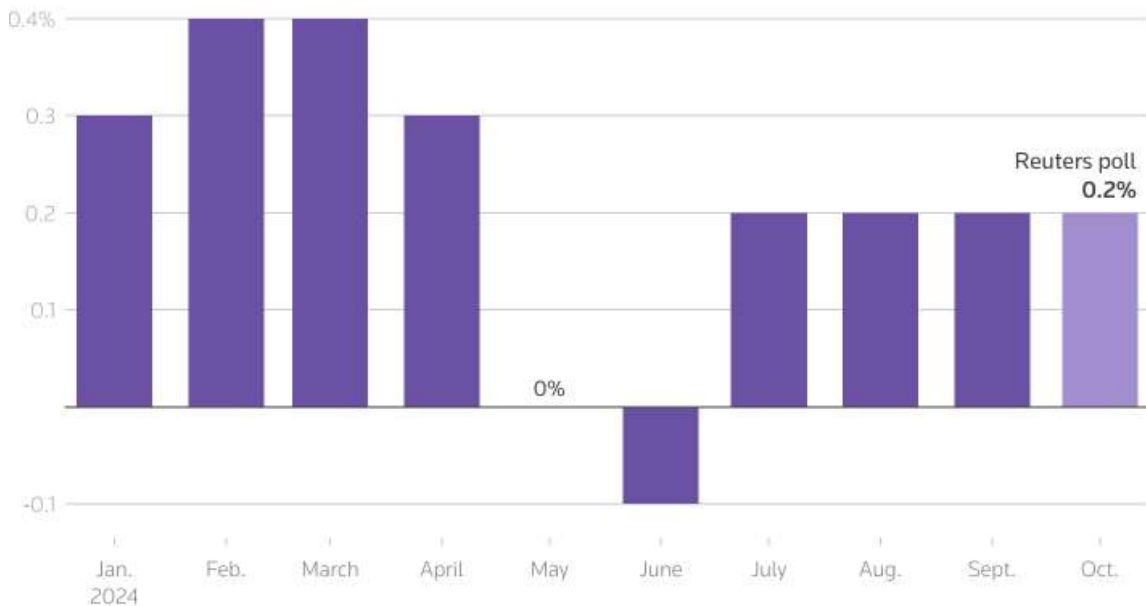
이코노미스트들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비 0.2% 상승(9월 +0.2%)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들은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면서 달러 강세와 은행 및 소형주 매수 등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될지 주목하고 있다.

### US inflation expected to stay steady for fourth straight month

Economists polled by Reuters project U.S. CPI inflation will accelerate 0.2% in October from the previous month.

CPI INFLATION - CHANGE FROM PREVIOUS MONTH



Sources: LSEG Datastream, Reuters polling | REUTERS, Nov. 7, 2024

## ① 中에 실망한 투자자

이목이 집중된 중국 최고 입법기관 회의는 지난 금요일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부진한 경제 성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10조위안(1조4000억 달러) 규모의 부채 패키지를 발표하며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하는 무역전쟁의 잠재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출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추측 속 지난 한주 중국 본토 우량주를 5.5% 끌어올린 투자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틀림없이 실망할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 후 며칠 만에 전략을 공식화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경고했지만, 투자자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기대를 실망시킬 때 반복적으로 중국 증시를 반복적으로 올려놨다.

트럼프가 위협한 60% 관세는 8년 전의 관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하는 것은 중국이 우려하는 것 중 가장 적은 부분일 수 있다.

## ② 독일의 정치 혼란

독일 집권 연정의 붕괴로 트럼프의 승리 직후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의 위기가 부각되고 있다.

올라프 솔츠 총리가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재무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하면서 1월에는 불신임 투표가, 3월에는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솔츠의 사회민주당은 현재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 함께 소수 정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불신임 투표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예산안 초안도 마무리해야 한다.

타이밍이 안타깝다. 독일은 일련의 좌절을 겪은 후 이제 막 경기 침체를 피한 상태인데,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M&A를 둔화시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로 가득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독일은 선거 치를 준비를 해야할 수 있다.

## ③ 유엔 기후 정상회의

정책 입안자들과 기후 운동가들은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 정상회의(COP29)에 참석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으로 향한다.

이 정상회의는 개발도상국이 기후 관련 비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후 금융 COP'라고 불리고 있다.

각국 정부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규칙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프레임 워크인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기를 원한다.

##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 美 물가지표, 트럼프 당선 이후 주식 랠리 지속 시험할 것

뉴욕, 11월11일 (로이터) -

이번 주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추세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에 힘입은 기록적인 주식 랠리 지속에 도움이 될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되면서 벤치마크 S&P500지수.SPX는 지난 금요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처음으로 장중 6000선을 돌파했다.

지난 목요일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경제 전망도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 다만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 있을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하는지에 따라 시험받을 전망이다.

B 라일리 웰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아트 호건은 오는 13일 소비자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공약, 특히 관세 인상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편,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3분기 2.8%의 견고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호조세다.

로이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월 CPI는 전년비 2.6% 상승률을 기록해 2021년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이었던 9월의 2.4%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2022년에 기록한 40년만의 최고치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기대치가 바뀐 후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예상이 더 바뀔 수 있다. 금리선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현재 4.5%~4.75%인 금리가 2025년 말까지 약 3.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9월의 예상치보다 약 100bp 높은 수준이다.

금융 완화 기대감은 견조한 기업 이익과 인공지능의 사업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올해 주식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다.

글렌메드의 투자 전략 담당 부사장인 마이클 레이놀즈는 연준 기준금리의 중립 수준은 3% 정도이며 "궁극적으로 연준이 중립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연준이 그 정도의 얇은 경로를 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험을 더하는 것은 트럼프의 경제 어젠다로, 대통령 임기 동안 성장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플란테 모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즈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짐 베어드는 "세금 정책이나 무역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테이블 위에 있으며 앞으로 연준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치적 인물을 지명하기 시작하면 초기 시장 반응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UBS 글로벌 자산 관리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목요일 메모에서 "시장은 트럼프의 승리를 소화하기 시작했다"면서 "트럼프 인수팀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추가 변동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11월11일 (일)

- ⊙ 관세청: 11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자문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尹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10:00)
- ⊙ 기획재정부: 1차관 美 대선 결과에 대한 주요국 대응 파악을 위한 재경관회의 (10:30)
- ⊙ KDI: KDI 현안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12:00)
- ⊙ 한국은행: 2024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12:0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기자 브리핑 (14:00)
- ⊙ 한국은행: 총재 BIS 이사회 및 총재회의 출장 (8일~ 13일)

11월12일 (화)

- ⊙ KDI: KDI 경제전망(2024 하반기) (12:00)

11월13일 (수)

- ⊙ 한국은행: 2024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06:00)
- ⊙ 통계청: 2024년 10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 (10: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14:00)

11월14일 (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09:00)

-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비통방) (10:00)
- ⊙ 기획재정부: 2024년 11월 재정동향(9월말 누계기준) (10:00)
- ⊙ 한국은행: 2024년 9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11월15일 (금)

- ⊙ 기획재정부: 2024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10:00)

(문윤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1월11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11월 8-15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10월	6.9%	6.8%
11월 8-15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10월	700.0B	1,590.0B
11월 11-18일		중국	FDI (YTD)	10월		-30.40%
11월 11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9월	3,262.8B	3,803.6B
11월 12일	20:00	미국	NFIB 기업 낙관지수	10월		91.5
11월 13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MM	10월	0.0%	0.0%
11월 13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1월 8일 주간		191.4
11월 13일	22:30	미국	CPI MM, SA	10월	0.2%	0.2%
11월 14일	04:00	미국	연방예산	10월		64.00B
11월 14일	19:00	유로존	GDP 수정치 QQ	3분기	0.4%	0.4%
11월 14일	19:00	유로존	산업생산 MM	9월	-1.2%	1.8%
11월 14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1월 4일 주간	224k	221k
11월 14일	22:30	미국	PPI MM	10월	0.2%	0.0%

11월15일	08:50	일본	GDP QQ 연율	3분 기	0.7%	2.9%
11월15일	10:30	중국	주택가격 MM	10월		-0.7%
11월15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10월	3.5%	3.4%
11월15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10월	5.4%	5.4%
11월15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10월	3.8%	3.2%
11월15일	22: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11월	-1.35	-11.90
11월15일	22:30	미국	수입물가 MM	10월	-0.2%	-0.4%
11월15일	22:30	미국	수출물가 MM	10월	-0.1%	-0.7%
11월15일	22:30	미국	소매판매 MM	10월	0.3%	0.4%
11월15일	23:15	미국	산업생산 MM	10월	-0.3%	-0.3%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1월11일 (월)

- ⊙ 일본은행 10월30-31일 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오전 8시50분)
- ⊙ 휴장국가: 미국(주식 개장, 채권 휴장)

11월12일 (화)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볼티모어 투게더 서밋에서 연설 (13일 오전 0시15분)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야후파이낸스 2024 인베스트먼트 행사 참석 (13일 오전 4시)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강연 (13일 오전 7시)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샬리스버리-위코미코 경제발전 행사에서 연설 (13일 오전 7시 30분)

11월13일 (수)

- ⊙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델러스·캔자스시티 연은 주최 컨퍼런스 개최사 (오후 11시35분)
- ⊙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멤피스경제클럽 오찬행사서 연설 (14일 오전 2시30분)
- ⊙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델러스·캔자스시티 연은 주최 컨퍼런스 기조연설 (14일 오전 3시30분)

11월14일 (목)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리얼이스테이트 라운드테이블에서 연설 (오후 11시15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델러스 연방은행 · 델러스 지역 회의소 주최 행사 참석 (15일 오전 5시)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은 주최 행사에서 연설 (15일 오전 6시15분)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정리)-트럼프가 연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11월8일 (로이터)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에게는 연준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즉, 파월의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에 만료되며 트럼프는 그때 새 연준 의장을 임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임기 중에 적어도 한 명의 다른 연준 이사를 교체할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연준 시스템의 구조와 정책 입안자 선출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 ◆ 연준 시스템

1913년 의회가 만든 연준은 워싱턴에 본부를 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전국에 산재한 12개의 지역 연방은행, 그리고 연준 이사진과 지역 은행 총재를 모두 포함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구성되어 있다.

연준 이사회는 전체 의장, 통화 정책과 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부의장 2명, 이사 4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4명의 이사진을 임명하는 데 성공했으며, 트럼프의 전임자인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으로 이사였던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승진시켰다.

파월과 현 이사인 미셸 보우먼, 크리스토퍼 월러를 포함한 역대 연준 이사 지명자들은 모두 연준 독립의 전통을 고수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았던 스티븐 무어, 주디스 셸턴, 허먼 케인 등 3명은 사퇴하거나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했다.

각 지역 연방은행은 각 은행 이사회의 소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총재가 운영한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FOMC는 7명의 이사회 전원과 뉴욕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4개의 다른 지역 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참여한다.

### ◆ 현재 이사회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14년 임기 또는 전임자의 14년 임기 중 만료되지 않은 잔여 기간 동안 재임한다. 임기는 2년 간격으로 시차를 두고 만료되며, 다음 임기는 2026년에 만료된다.

연준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직과 동시에 4년 임기로 임명되며, 일반적으로 재임명되지 않으면 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다. 파월의 의장직은 2026년 5월에 만료되며, 두 부의장직은 차기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에 만료된다.

다음은 임기 만료가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된 현직 이사들의 목록이다.

이사회 멤버	이사회 합류, 임기 연장	이사회 임기 종료	의장/부의장 취임/재임명	의장/부의장 임기 종료
아드리아나 쿠글러	9/13/2023	2026년 1월		
제롬 파월, 의장	5/12/2012, 6/14/2014	2028년 1월	2/5/2018, 5/23/2022	2026년 5월
크리스토퍼 월러	12/18/2020	2030년 1월		
마이클 바, 감독 담당 부의장	7/19/2022	2032년 1월	7/19/2022	2026년 7월
미셸 보우먼	11/26/2018, 1/23/2020	2034년 1월		
필립 제퍼슨, 부의장	5/23/2022	2036년 1월	9/13/2023	2027년 9월
리사 콕	5/23/2022, 9/8/2023	2038년 1월		

◆ 현재 연방은행 총재

연방은행 총재는 은행 소속이 아닌 6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선출하며, 연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재는 의무 은퇴 연령인 65세까지, 또는 55세 이후에 임명된 경우 10년 또는 7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든 현직 총재의 임기는 2026년 2월에 종료되며, 이 때 이사회에서 5년 단위로 새로운 총재 임명을 검토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재임명 절차로 인해 총재가 교체된 적은 없지만, 이는 법이 아닌 관례이다.

다음은 트럼프의 다음 임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연준 지역 은행장의 임기 제한일과 함께 연준 지역 은행장 목록이다.

은행	은행장	예상 임기 종료일
필라델피아	패트릭 하커	2025년 6월
리치몬드	토마스 바킨	2028년 1월
뉴욕	존 윌리엄스	2028년 1월
샌프란시스코	메리 데일리	2028년 10월
애틀랜타	라파엘 보스틱	2028년 이후
보스턴	수잔 콜린스	2028년 이후
캔자스시티	제프리 슈미드	2028년 이후

세인트 루이스	알베르토 무살	2028년 이후
시카고	오스탄 굴스비	2028년 이후
미니애폴리스	닐 카시카리	2028년 이후
댈러스	로리 로건	2028년 이후
클리블랜드	베스 해맥	2028년 이후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FACTBOX)-트럼프 재집권, 亞 기업에 어떤 영향이?

11월7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백악관을 떠난 지 4년 만에 놀라운 복귀를 이뤄냈다.

아시아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과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미국의 비즈니스 정책 변화가 아시아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 ◆ 반도체

한국의 삼성전자( 005930.KS)와 대만의 TSMC( 2330.TW )가 이끄는 아시아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하이엔드 칩에 대한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현 미국 행정부의 주요 이니셔티브에 힘입어 미국에 총 1,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로이터의 계산에 따르면 이들은 그 대가로 최소 188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과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약속받았다.

트럼프가 "나쁜" 계획이라고 불렀던 이 계획을 철회할지는 불분명하다. 그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 대만이 미국 반도체 회사로부터 사업을 훔쳤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대만의 글로벌웨이퍼스( 6488.TWO )는 7일 보조금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 전기 자동차

트럼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적자를 없앨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는 또 일부 수입 자동차에 대해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특히 멕시코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관세는 혼다 7267.T, 닛산 7201.T, 기아자동차 000270.KS 를 포함한 여러 아시아 자동차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것이다.

혼다의 최고 운영 책임자 아오야마 신지는 6일 자사가 멕시코 생산량의 80%를 미국 시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6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관세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영구화되면 혼다는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무관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전기차 배터리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과 일본의 파나소닉( 6752.T )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청정 에너지 정책의 잠재적 후퇴와 배출 규제 완화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과 SK온은 미국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하면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이러한 혜택이 없었다면 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반면 중국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그대로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 한국 생산업체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 ◆ 일본제철

미국 정부는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래인 US스틸 ( X.N ) 에 대한 일본제철 ( 5401.T )의 149억 달러 입찰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노조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거래를 막겠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바이든도 인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 중국

중국 기업들은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실행에 옮길지 지켜보고 있으며, 이는 2017~2021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벌어진 무역 전쟁을 연상시키는 새로운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무역 전쟁으로 2,000억 달러 이상의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진공청소기 제조업체부터 기계류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타격을 입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부분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화웨이테크놀로지스는 하이엔드 반도체 구매가 금지되어 스마트폰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몇몇 중국 기업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출 통제도 당했다.

표적이 된 다른 중국 기술 기업에는 바이트댄스와 텐센트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틱톡과 위챗 소셜 미디어 앱이 미국 내 운영이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일부 중국 수출업체들은 트럼프의 복귀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국 기술기업 경영진은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려는 미국의 노력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

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투적인 접근 방식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 재임 당시 상무부에서 일했던 나자크 니카르타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